

목포, 한류 이어간다...미디어마케팅 박차

문체부 주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최종 선정 지역 촬영지 활용·관광상품화 추진...국내외 홍보 주력

목포시가 한류 열풍을 이어간다. 이에 대안으로 미디어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류드라마 지역 촬영지 활용, 관광객 유치에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목포시는 공모 신청 지자체 가운데 2차

심사 및 선정을 거친 14개 지자체 중에서 합천군, 오산시와 함께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목포시는 공모 선정으로 지원받는 국비 5천만원 포함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드라마 촬영지 관광환경 조성, 관광콘텐츠 및 마케팅 등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크고 작은 20여편의 드라마 및 영화가 촬영 됐으며 조만간 영화 롱 리브터킹, 뜨거운피,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등이 개봉 및 방영될 예정이다.

특히 2017년 12월 개봉한 영화 '1987' 촬영지인 서산동 '연희네슈퍼'는 같은 해 2월 촬영 당시의 모습으로 리모델링 및 관광 상품화 했고 현재까지 총 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영화 '1987'은 국내 723만명의 관람객이 관람했고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호주 등에서도 상영해 목포시 홍보 및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올해 7월 tvN을 통해 방영 예정인 드라마 '호텔 델루나'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배우 여진구 주연의 작품으로 목포 근대역사관 1관을 주인공들의 주요 스토리 전개 장소인 호텔로 설정, 촬영해 방영 전부터 국·내외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유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실시한 2019 해의 한류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국 16개국 중 9개 나라에서 톱 10에 링크될 정도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 드라마가 방영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드라마 촬영지인 목포시(근대역사관 1관)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목포는 드라마 및 영화 제작 관계자들에게 촬영지로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향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에는 일본영화관으로 사용됐던 근대역사관 같은 근대 문화자산이 즐비해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며 "앞으로도 목포 지역이 가진 좋은 자원을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으로 세일즈 해 목표를 국내외에 더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신안 하의면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개발' 선정...100억 확보

신안군 하의면 응곡리 일원의 정주여건이 확 바뀐다.

신안군은 19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하의면 응곡리 지역이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총 100억원(국비 70%)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해 8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유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주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군청 및 면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이 선진지 벤치마킹과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모계획서를 작성, 전남도 1차 심사 및 해양수산부 2차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하의 응곡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중심지 경관정비, 관광안내센터, 해안산책로, 야간경관조명, 무궁화길 조성, 갯벌공원, 전복체험장, 복지기반시설정비, 어민공동작업장, 주민안전관리시스템, 선박계류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청정바다를 따라 어촌관광 기반구축 및 경관 정비로 체류형 섬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생활기반 개선, 주민 복지실현과 소득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양훈기자



해남 가학산자연휴양림이 맞춤형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숲 해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은 가학산자연휴양림 참여 아동들이 체험 프로그램인 '유아 숲 햇님밧줄놀이'를 진행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 가학산휴양림 '전문 숲 해설 기관' 발돋움

인문학 강의·자유학기제 등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

해남 가학산자연휴양림이 단순 휴양 시설을 넘어 산림가치를 높이는 '전문 숲 해설 기관'으로 거듭났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가학산 자연휴양림은 올해 맞춤형 숲 해설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고 인문학 강사들이 참여하는 숲 속 인문학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오는 25일 김영란 광주보건대 지도교수(숲과 문화학교 교장)의 '숲길에 전해주는 이야기'와 인디언 수니 노래공연 ▲6월 15일 황상민 WPI 심리상담교수(대표 심리상담가)의 '숲속 심리콘서트' ▲7월 9일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궁궐의 우리나라' 등 저자)의 '우리 문화속의 나무이야기' ▲10월 25일 강판권 계명대 교수('나무를 품은 선비' 저자)의 '나무...자신만의 하늘을 가져라!' 등을 주제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내 휴양림 최초로 처음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

자유학기제는 '산책을 통한 산림지리', '독도법(지도보는법)', '고전속의 나무(인문학)'를 주제로 시행될 예정으로 휴양림에서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학산 자연휴양림은 하반기 산림청 우수인증 프로그램 등록과 교육부로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등록으로 전문 숲 해설 기관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가학산자연휴양림은 2016년부터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배치해 숲 해설과 유아 숲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해남=김병용기자

올해 산림청 유아숲체험원으로 정식 등록된 가학산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은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다참나무류가 산재해 있고 다양한 식물관찰 프로그램과 계절별로 실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에만 3천700여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숲 속 인문학 강의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찾아가는 숲 해설 등 맞춤형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의 정서를 높이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휴양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곧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즉석 운영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 산책로 정비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열대거세미나방' 예찰 강화

영광군은 19일 "열대 또는 아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열대거세미나방이 동남아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영광 지역에 나라울 우려가 있어 관내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우리나라 검역관리 병해충으로 옥수수, 수수 등 화본과 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광식성 해충으로 대량 발생 및 장거리 이동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작물 수확량에 큰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비래 해충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남부에 이미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광=김동규기자

열대거세미나방은 하나의 알 덩어리가 50-200개의 알로 이뤄지며 산란 직후 녹색을 띠나 부화기 가까워지면 밝은 갈색으로 변하며 알은 흰색의 털로 덮여 있다.

가해양상으로는 유충이 무리지어 어린잎의 아랫면을 갉아먹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잎이 창문처럼 비쳐져 보이는 특징이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열대거세미나방은 옥수수 등 화본과 작물을 주로 가해하므로 옥수수, 수수 재배 농가의 관심과 의심개체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061-350-557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영암경찰서(서장 박인배)가 관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섰다.

19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5월 행정철 교통량 증가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들어 영암 관내 교통사망사고가 3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중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13번국도 등을 대

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또한 6월 25일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인배 영암경찰서장은 "이번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활동이 영암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